이달의 초점

지역 인구변화의 다층적 이해와 과제

지역 인구변동의 주요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 장인수 |

생애주기 사건과 지역 이동: 대학 진학, 취업, 결혼을 중심으로

| 이지혜A |

생활권 이동과 지자체 정책 체감

| 고제이 |

인구이동과 정주여건

| 강지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생애주기 사건과 지역 이동: 대학 진학, 취업, 결혼을 중심으로[1)]

Life Events and Residential Mobility: Evidence from College Entry, Employment, and Marriage

이지혜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주요 생애주기 사건인 대학 진학, 취업, 결혼 전후의 거주지 분포 변화와 지역 간 이동 양상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 진학에서는 서울과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첫 취업에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 비율이 증가하고, 첫 결혼에서는 서울과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기의 지역 이동이 대학, 일자리, 주거비와 같은 구조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 비수도권 일자리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주거 지원 정책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1 들어가며

한국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 문제는 청년층의 자립이나 주거 부담, 일자리, 남녀 성비, 자녀 양육 및 돌봄 인프라, 의료 인프라, 삶의 질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특히 청년층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청년층의 수도권 전입 사유는 직업이 압도적이고 그다음은 교육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25).

청년기는 지역 이동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한요셉 외, 2021; Bernard et al., 2014). 이 시기는 진학, 취업, 결혼 등 주요 생애 과정을 경험하는 때이며,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 나서는 때이기

1) 이 글은 이지혜, 박종서, 이소영, 장인수, 최선영, 정희선. (2025). 결혼과 출산의 최근 동향과 영향 요인: 2024년 가족과 출산조사 심층분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4장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 보완·정리한 것이다.

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2025년 연령별 국내 이동 결과 이동률이 가장 높은 집단이 20대(24.3%), 30대(20.4%), 10대(12.9%) 순으로 나타났다(국가데이터처, 2026). 청년층의 지역 이동 사유는 20세 미만은 교육, 20대와 30대는 직업과 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국가통계포털, 2026). 특히 소득이 있는 청년 중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큰 소득 상승을 보여(국가데이터처, 2025) 청년에게 지역 이동, 특히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소득에 이점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같은 연령이더라도 경험하는 생애 사건이 다르며, 생애 사건이 이동의 촉발 요인이라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실제 생애 사건 전후로 어떠한 이동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통해 지역의 인구 분포와 이동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서울 외 수도권(경기, 인천)을 구분하여 수도권 집중이 서울 집중인지 서울 외 수도권 집중인지를 알아보고, 지방 활성화를 위한 거점 지역으로서 지방 광역시의 역할을 고려하여 수도권 외 지역을 광역시와 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 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분석 개요

이 연구에서는 주요 생애 사건 전후의 지역 분포와 지역 이동을 성별, 출생 코호트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2]' 원자료이며, 분석 대상은 19~49세 남녀 1만 4372명 중 국외 거주 경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총 1만 3936명이다. 이 연구에서 지역 이동은 시군구 경계를 넘어선 이동을 기준으로 하였다. 주요 생애 사건은 가족과 출산 조사의 조사 대상인 19~49세에서 지역 이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대학 진학과 첫 취업, 첫 결혼으로 한정하였다.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 조사한 주요 생애 사건 전후의 거주지를 파악한 결과 지역 이동이 가장 많은(동일 시군구가 아닌 비율이 가장 높은) 사건은 첫 번째 분거 시기로 76.1%가 첫 분거 전후 거주 지역이 동일 시군구가 아니었다. 그다음은 첫 결혼 시기, 대학(교) 입학 시기, 첫 취업 시기로, 각 시기 전후의 거주지가 동일 시군구가 아닌 비율이 각각 51.2%, 31.2%, 27.3% 순이었다. 첫 분거 시기 전후로 가장 높은 비율로 지역 이동이 발생하였으나, 첫 분거는 취업이나 대학 입학, 결혼 등 여러 가지 생애 사건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이 분석에서 활용한 가족과 출산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행동 심층 조사로, 전국 700개 표본조사구 내 1만 500개 가구의 19~49세 성인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박종서 외, 2024, p. 1). 이 분석에서는 가족과 출산 조사 항목 중 '주거 이동과 독립' 영역에 있는 7개의 생애주기 사건(표 1에 있는 7개의 사건임) 직전의 거주 지역과 해당 시기의 거주 지역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세 가지 생애 사건인 대학(교) 진학과 취업, 결혼을 경험한 케이스를 출생 코호트별, 성별로 살펴본 결과 대학(교) 진학은 74~79년생이 60%대, 80~84년생 70%대, 85~89년생 84% 전후까지 증가하였다. 그 후 여성은 84~85% 정도를 유지하였고, 남성은 77~79%까지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

[표 1] 주요 생애주기 사건의 지역 이동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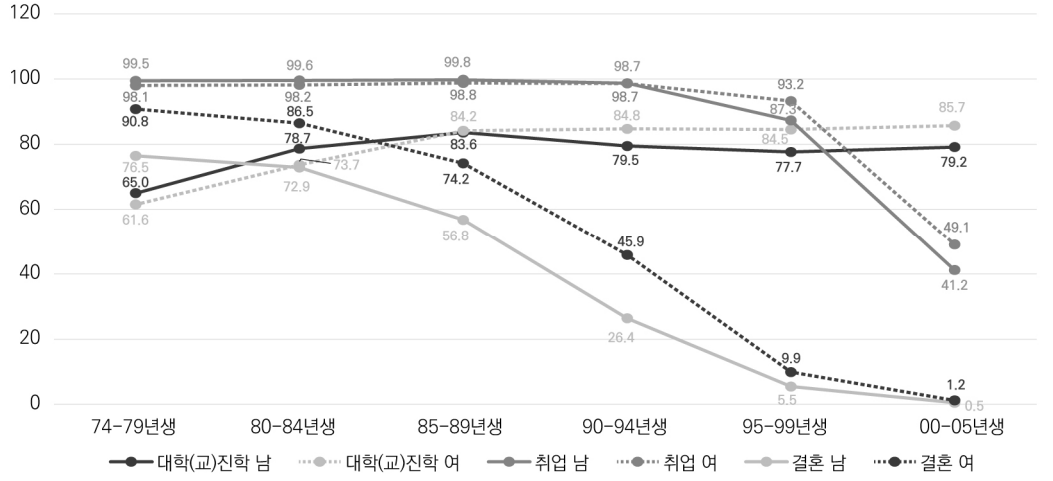
구 분	동일 시군구	동일 시군구 외	계	N
1) 고등학교 입학 시기	96.0	4.0	100.0	13,683
2) 대학(교) 입학 시기	68.8	31.2	100.0	11,109
3) 첫 번째 취업 준비 시기	84.3	15.7	100.0	2,088
4) 첫 번째 취업 시기	72.7	27.3	100.0	12,750
5) 첫 번째 분거 시기	23.9	76.1	100.0	10,591
6) 첫 결혼 시기	48.8	51.2	100.0	6,875
7) 첫 출산 시기	94.8	5.2	100.0	5,554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사례 수는 주요 생애주기별로 해당 시기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첫 결혼 시기는 결혼한 사람)만 해당되며, 시기가 겹치는 경우(예를 들어 대학 입학 시기가 첫 분거 시기와 동일한 경우)는 두 시기에 각각 포함되어 있음.
3) 해당 시기 직전과 직후의 거주 시군구 코드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시군구이며, 시군구 코드가 다르거나 해외(직전과 직후 둘 중 하나 이상)인 경우 동일 시군구 외임.

출처: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박종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98, 〈표 9-11〉.

[그림 1] 성별, 출생 코호트별 주요 생애주기 사건 경험 비율

(단위: %)



출처: "결혼과 출산의 최근 동향과 영향 요인: 2024년 가족과 출산조사 심층분석", 이지혜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81, [그림 4-1].

타났다. 1984년생까지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높았으나, 1985년생부터는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취업 경험은 90~94년 출생 코호트까지는 98~99%대로 거의 모든 응답자가 취업 경험이 있었으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취업 경험 비율이 약간(1~1.5%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1995년생 이후 최근 코호트는 본격적인 취업 진입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 군복무 의무가 없는 여성의 취업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결혼 경험은 전체 출생 코호트에서 여성의 경험률이 높았다. 여성은 74~79년생 90.8%, 80~84년생 86.5%, 85~59년생 74.2%, 90~94년생 45.9%가 결혼을 경험하였으나, 남성의 결혼 경험 비율은 74~79년생 76.5%, 80~84년생 72.9%, 85~89년생 56.8%, 90~94년생 26.4%로 1994년생까지는 여성에 비해 결혼 경험 비율이 14~20%포인트 가까이 낮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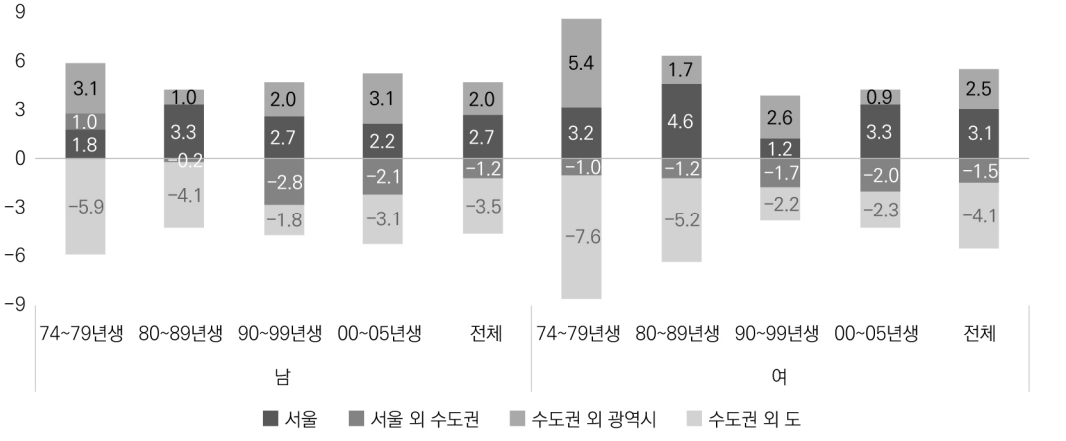
3 생애주기 사건과 지역 이동

가. 대학(교) 입학 전후 지역 분포와 이동

대학(교) 입학 전과 후의 거주지 분포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대체로 서울과 수도권 외 광역시는 대

[그림 2] 성별, 출생 코호트별 대학(교) 입학 전후 거주지 분포 차이

(단위: %P)



주: 1) 대학(교) 입학 시기 거주지 비율에서 대학(교) 입학 직전 거주지 비율을 뺀 값으로, '+'는 해당 지역 거주 증가, '-'는 해당 지역 거주 감소를 의미함.
2) 사례 수는 남성 5620명, 여성 5179명임.

출처: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박종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원자료 분석.

학(교) 입학 이후 거주 비율이 증가하였고, 서울 외 수도권과 수도권 외 도 지역은 대학(교) 입학 이후 거주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을 이동해서까지 진학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학(교)이 서울이나 수도권 외 광역시에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 입학 전후 거주 비율이 증가한 서울과 수도권 외 광역시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서울의 거주 비율 증가가 조금 더 큰 편이었다. 대학(교) 입학 전후 거주 비율이 감소한 서울 외 수도권과 수도권 외 도 지역에서는 수도권 외 도 지역의 거주 비율 감소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 출생 코호트별로는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74~79년생, 성별로는 여성의 대학(교) 입학 전후 거주지 분포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대학(교) 입학 전후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성별, 출생 코호트에 상관없이 수도권 외 도 지역 거주자의 이동이 가장 많았다. 즉

[표 2] 성별, 출생 코호트별 대학(교) 입학 전후 이동

(단위: %, 명)

대학 입학 전		대학 입학 후													
		남성							여성						
		동일 시군구	명	지역 이동(합계 100%)					동일 시군구	명	지역 이동(합계 100%)				
				서울	서울 외 수도권	수도권 외 광역시	수도권 외 도	명			서울	서울 외 수도권	수도권 외 광역시	수도권 외 도	명
74~79년생	서울	80.2	190	10.9	51.8	5.6	31.7	37	88.9	219	20.2	24.3	42.4	13.1	24
	서울 외 수도권	71.9	141	27.9	22.7	4.7	44.7	40	72.9	137	51.5	17.7	7.0	23.7	37
	수도권 외 광역시	81.3	205	26.5	8.2	27.6	37.7	38	85.1	217	34.8	11.9	34.7	18.6	32
	수도권 외 도	52.7	318	18.2	11.2	33.3	37.3	150	50.9	277	12.0	9.0	39.9	39.1	136
	전체	68.9	853	19.8	18.2	24.3	37.7	266	73.0	850	22.4	12.4	34.1	31.0	230
80~89년생	서울	81.2	436	12.6	31.7	8.6	47.1	82	89.0	356	39.0	24.1	15.2	21.8	39
	서울 외 수도권	69.0	469	25.1	36.7	4.4	33.9	145	77.2	410	29.8	40.2	3.6	26.4	94
	수도권 외 광역시	75.3	477	29.8	12.2	31.4	26.6	118	81.2	431	35.4	5.0	33.5	26.2	81
	수도권 외 도	49.6	658	20.4	14.5	26.2	38.8	332	52.8	538	18.9	8.7	29.3	43.2	254
	전체	66.8	2,039	22.1	21.0	20.3	36.6	677	73.0	1,734	25.6	15.7	23.7	35.0	468
90~99년생	서울	79.8	333	12.8	25.0	11.7	50.5	67	74.8	348	26.5	34.8	6.9	31.9	88
	서울 외 수도권	70.3	525	21.6	31.7	11.4	35.3	156	76.1	490	26.9	30.3	7.1	35.7	117
	수도권 외 광역시	69.1	350	22.7	11.6	30.3	35.5	108	74.0	351	27.6	2.5	41.5	28.4	91
	수도권 외 도	47.9	579	15.9	8.7	28.6	46.8	302	49.1	442	12.4	9.5	36.3	41.8	225
	전체	64.6	1,787	18.1	16.6	22.9	42.4	633	68.0	1,631	20.7	17.2	25.7	36.4	521
00~05년생	서울	89.1	149	46.4	18.4	-	35.2	16	77.9	170	19.2	48.0	2.0	30.8	37
	서울 외 수도권	83.2	306	27.9	35.4	2.6	34.1	51	82.7	334	37.0	14.4	14.3	34.3	58
	수도권 외 광역시	76.2	202	7.1	2.8	66.8	23.3	48	70.0	192	34.1	5.9	36.2	23.8	58
	수도권 외 도	53.0	285	8.7	6.5	32.3	52.4	134	55.4	269	17.8	7.3	30.7	44.1	120
	전체	73.4	941	14.8	12.5	30.8	41.9	250	71.7	964	25.5	14.1	24.5	35.9	273

[표 2] 계속

대학 입학 전		대학 입학 후												
		남성							여성					
		동일 시군구	명	지역 이동(합계 100%)					동일 시군구	명	지역 이동(합계 100%)				
				서울	서울 외 수도권	수도권 외 광역시	수도권 외 도	명			서울	서울 외 수도권	수도권 외 광역시	수도권 외 도	명
전체	서울	81.7	1,107	15.1	32.1	8.4	44.4	203	82.7	1,092	26.8	33.8	12.2	27.2	189
	서울 외 수도권	72.8	1,440	24.4	33.1	7.0	35.6	392	77.7	1,370	32.7	28.8	7.4	31.1	306
	수도권 외 광역시	74.7	1,234	23.4	10.1	36.0	30.5	312	78.0	1,191	32.3	5.2	37.0	25.5	262
	수도권 외 도	50.1	1,840	16.9	10.9	29.1	43.2	917	51.8	1,525	15.4	8.8	33.6	42.1	375
	전체	67.5	5,620	19.4	17.9	23.2	39.5	1,825	71.2	5,179	23.4	15.4	26.1	35.1	1,492

주: 30케이스 미만인 경우 해석에 주의를 요함.
출처: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박종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원자료 분석.

수도권 외 도 지역에서는 대학(교) 입학 전후 동일 시군구 비율이 절반 정도(남성 전체 기준 50.1%, 여성 전체 기준 51.8%)에 불과했는데, 나머지 절반 정도가 타 시군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코호트별로는 90년생 이전까지는 서울, 수도권 외 광역시 거주자의 지역 이동이 적었으나, 90년생부터 수도권 외 광역시 지역 거주자의 대학(교) 입학 전후 지역 이동이 많아지고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대학 전후 이동이 많았다.

대학(교) 입학 전 어디에서 입학 후 어디로 이동하는지 살펴본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수도권 외 도 지역으로 많이 이동하였다. 여성은 수도권은 수도권 내에서, 수도권 외 광역시는 서울이나 다른 광역시로, 수도권 외 도 지역은 수도권 외 광역시나 수도권 외 도 지역으로 많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첫 취업 전후 지역 분포와 이동

첫 취업 전후 거주지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면 서울과 서울 외 수도권 거주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수도권 외 광역시와 수도권 외 도 지역의 거주 비율은 감소하였다. 즉 취업에서는 대학 진학과 달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어 수도권의 거주 증가와 비수도권 거주 감소가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에 청년이 일할 만한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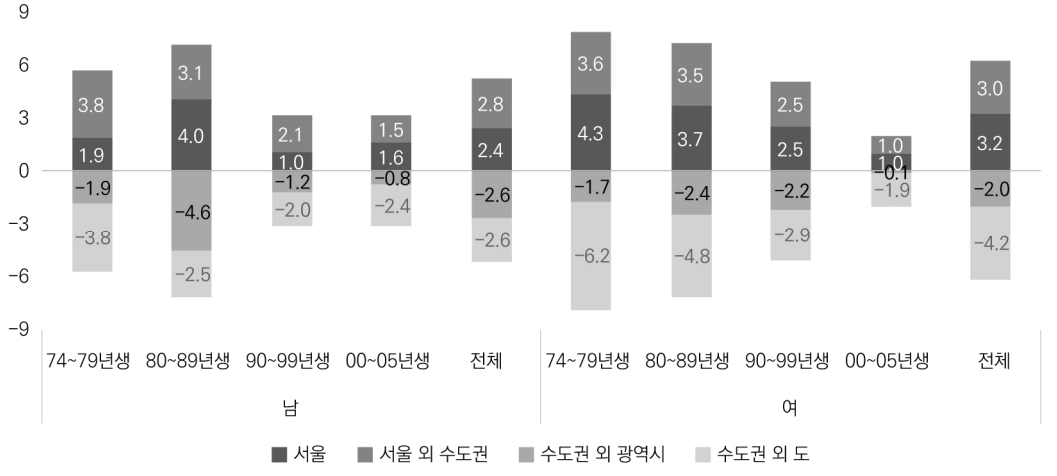
출생 코호트와 성별로는 대체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첫 취업 전후 거주지 분포 차이가 적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거주지 분포 차이가 남성보다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00~05년생을 제외하고 첫 취업 전후 거주지 이동 양상을 살펴보면 성별, 출생 코호트에 상관없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

권 거주자인 경우 첫 취업 전후 동일 시군구인 경우가 70~80%로 높아 지역 간 이동이 적게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외 도 지역 거주자는 첫 취업 전후 동일 시군구인 경우가 50~60% 정도로 40% 이상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외 광역시 지역 거주자는 수도권보다는 적게, 수도권 외 도 지역보다는 많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취업 전후의 지역 이동은 성별로는 여성보

[그림 3] 성별, 출생 코호트별 첫 취업 전후 거주지 분포 차이

(단위: %P)



주: 1) 첫 취업 시기 거주지 비율에서 첫 취업 직전 거주지 비율을 뺀 값으로, '+'는 해당 지역 거주 증가, '-'는 해당 지역 거주 감소를 의미함.
2) 사례 수는 남성 6415명, 여성 5929명임.

출처: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박종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원자료 분석.

[표 3] 성별, 출생 코호트별 첫 취업 전후 이동

(단위: %, 명)

취업 전		취업 후													
		남성							여성						
		동일 시군구	명	지역 이동(합계 100%)					동일 시군구	명	지역 이동(합계 100%)				
				서울	서울 외 수도권	수도권 외 광역시	수도권 외 도	명			서울	서울 외 수도권	수도권 외 광역시	수도권 외 도	명
74~79년생	서울	81.2	301	11.7	62.9	10.2	15.2	57	89.1	327	39.7	36.8	10.2	13.3	36
	서울 외 수도권	80.6	266	41.5	41.1	7.1	10.3	52	77.4	255	26.4	64.8	2.9	5.9	58
	수도권 외 광역시	68.3	319	17.0	11.0	37.3	34.7	101	76.0	349	29.6	17.6	35.3	17.6	84
	수도권 외 도	64.6	420	24.0	22.7	20.0	33.4	148	62.8	422	25.6	25.9	16.5	32.0	157
	전체	72.6	1,305	22.6	28.4	21.5	27.5	358	75.3	1,354	28.2	31.7	18.2	21.9	334

[표 3] 계속

취업 전		취업 후												
		남성							여성						
		동일 시군구	명	지역 이동(합계 100%)					동일 시군구	명	지역 이동(합계 100%)				
				서울	서울 외 수도권	수도권 외 광역시	수도권 외 도	명			서울	서울 외 수도권	수도권 외 광역시	수도권 외 도	명
80~89년생	서울	79.5	603	37.3	37.2	6.7	18.8	124	85.5	535	42.1	42.7	6.4	8.8	78
	서울 외 수도권	74.2	639	32.8	46.0	4.8	16.4	165	81.1	508	30.6	57.5	3.3	8.7	96
	수도권 외 광역시	60.7	578	15.0	14.7	24.9	45.5	227	75.6	537	30.0	15.2	28.2	26.7	131
	수도권 외 도	53.1	688	28.1	27.1	12.2	32.6	323	60.4	599	23.9	27.3	13.8	35.0	237
	전체	66.6	2,508	26.8	28.9	13.4	30.9	838	75.1	2,179	29.1	31.9	14.4	24.6	542
90~99년생	서울	75.7	434	43.5	31.1	7.0	18.5	105	85.0	451	51.2	28.4	6.5	13.9	68
	서울 외 수도권	80.2	630	16.8	52.3	5.0	25.9	125	82.7	538	20.4	61.6	3.1	14.9	93
	수도권 외 광역시	70.1	413	13.4	15.9	33.0	37.7	123	68.3	413	21.2	16.0	36.0	26.8	131
	수도권 외 도	61.6	636	18.1	21.0	18.2	42.7	244	62.4	443	19.7	25.3	21.8	33.1	167
	전체	71.7	2,113	21.3	28.2	16.5	33.9	598	75.2	1,844	24.9	30.5	19.8	24.8	458
전체	서울	79.2	1,414	34.3	40.2	7.5	18.0	295	86.3	1,443	46.7	34.5	7.0	11.9	197
	서울 외 수도권	79.2	1,711	27.8	47.9	5.0	19.3	356	82.6	1,508	27.0	59.7	2.9	10.4	262
	수도권 외 광역시	67.0	1,407	14.8	14.7	30.2	40.4	465	74.0	1,401	25.8	15.2	33.7	25.2	365
	수도권 외 도	60.1	1,883	24.2	23.7	15.6	36.6	751	62.1	1,578	21.9	26.7	17.3	34.0	597
	전체	70.9	6,415	24.1	28.7	15.9	31.3	1,867	76.0	5,929	27.3	30.9	17.4	24.3	1,421

주: 1) 30케이스 미만인 경우 해석에 주의를 요함.
2) 00~05년생은 취업 케이스가 적어 값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전체에는 포함하였음.
출처: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박종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원자료 분석.

다 남성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첫 취업 전후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였는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남녀 모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많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외 광역시에서는 남성은 수도권 외 도 지역, 수도권 외 광역시 순으로 많이 이동한 반면 여성은 수도권 외 광역시에서 수도권 외 광역시, 서울, 수도권 외 도 지역 등 다양하게 이동하였다. 수도권 외 도 지역에서는 남녀 모두 수도권 외 도 지역으로 가장 많이 이동하였으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도 많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첫 결혼 전후 지역 분포와 이동

첫 결혼 전후 거주지 분포 차이를 보면 서울 외 수도권과 수도권 외 도 지역 거주 비율이 증가하였고, 서울과 수도권 외 광역시 거주 비율은 감소하였다. 특히 서울 거주 비율 감소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의 주거비(매입, 임차 시 보증금, 월세 등)가 너무 높기 때문에 결혼 시 서울을 이탈하여 경기도 등 서울 인근으로 신혼집을 마련하기 때문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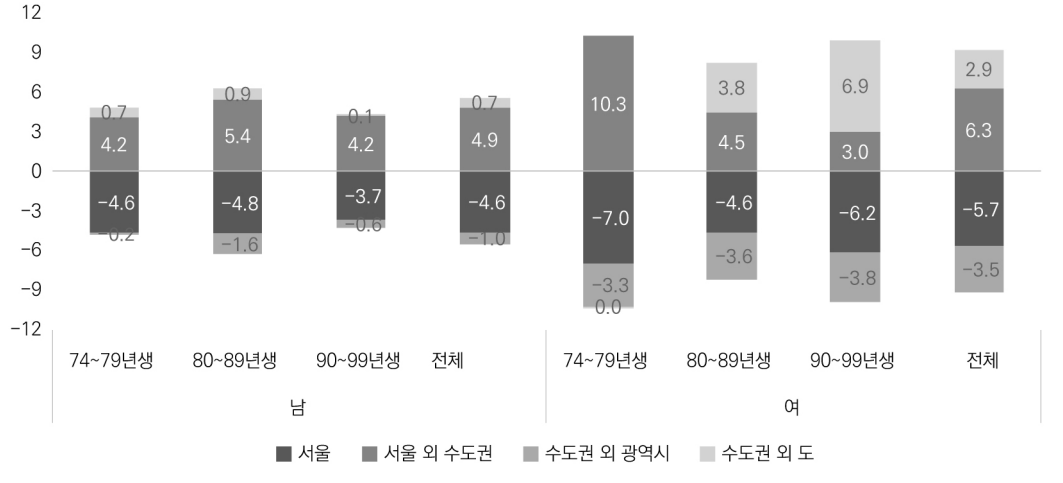
으로 보인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광역시의 주거비가 도 지역 주거비에 비해 높기 때문에 결혼 시 광역시 인근 지역으로 신혼집을 마련하여 이탈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주거비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나 그 정도는 약한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출생 코호트에 상관없이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결혼 전후 거주지 분포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특히 결혼 후 수도권 외 도 지역 거주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 시 대체로 여성이 남성의 거주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00~05년생을 제외하고 첫 결혼 전후 이동 양상을 살펴보면 성별, 출생 코호트에 상관없이 결혼 전 수도권 외 도 지역 거주자의 경우 결혼 후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남성은 70% 이상, 여성은 50~70%로 결혼 전후 이동이 가장 적었다. 이는 대학(교) 진학이나 첫 취업 시 수도권 외 도 지역 거주자의 이동이 가장 많았던 것과 반대되는 양상으로, 이 지역의 낮은 주거 비용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결혼 전 서울 거주자의 경우 결혼 후 동일 시군구인 경우가 남성은 30~40%, 여성은 20~30% 정도로 적어 이동이 가장 많은 편이었다. 이 역시 서울의 높은 주거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결혼 전 수도권 외

[그림 4] 성별, 출생 코호트별 첫 결혼 전후 거주지 분포 차이

(단위: %P)



주: 1) 첫 결혼 시기 거주지 비율에서 첫 결혼 직전 거주지 비율을 뺀 값으로, '+'는 해당 지역 거주 증가, '-'는 해당 지역 거주 감소를 의미함.
2) 사례 수는 남성 2998명, 여성 3554명임.

출처: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박종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원자료 분석.

광역시 거주자의 결혼 후 이동도 많은 편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결혼 전후 지역 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결혼 전후 동일 시군구가 아닌 경우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였는지 살펴보면 남녀 모두 결혼 전 서울 지역 거주 시 결혼 후 서울 또는 서울 외 수도권으로 이동하였다. 서울 외 지역은 남녀 모두 같은 카테고리(서울 외 수도권→서울 외 수도권, 수도권 외 광역시→수도권 외 광역시, 수도권 외 도→수도권 외 도)로의 이동이 가장 많으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 조금 더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편이었다.

[표 4] 성별, 출생 코호트별 첫 결혼 전후 이동

(단위: %, 명)

결혼 전		결혼 후												
		남성							여성					
		동일 시군구	명	지역 이동(합계 100%)					동일 시군구	명	지역 이동(합계 100%)				
				서울	서울 외 수도권	수도권 외 광역시	수도권 외 도	명			서울	서울 외 수도권	수도권 외 광역시	수도권 외 도	명
74~79년생	서울	35.9	223	54.0	38.8	4.7	2.5	143	27.7	327	42.8	44.4	5.4	7.4	237
	서울 외 수도권	62.2	269	16.7	78.3	-	5.0	102	48.1	288	15.4	70.2	3.0	11.4	149
	수도권 외 광역시	53.2	209	1.6	2.8	77.7	17.9	98	29.8	308	5.7	12.8	58.2	23.4	216
	수도권 외 도	76.7	301	1.0	7.9	18.4	72.7	70	54.3	330	8.3	27.0	21.1	43.7	151
	전체	58.8	1,003	23.4	34.8	23.2	18.7	413	39.9	1,254	19.8	36.9	23.2	20.0	753
80~89년생	서울	37.6	424	53.9	40.0	3.2	2.9	265	33.2	468	49.4	37.6	4.5	8.5	312
	서울 외 수도권	58.2	453	19.1	75.3	0.7	4.8	189	42.4	471	19.3	68.6	2.7	9.4	271
	수도권 외 광역시	45.5	316	-	3.7	74.0	22.2	172	33.6	412	4.6	9.6	58.2	27.7	274
	수도권 외 도	74.2	447	6.6	20.5	8.0	64.9	116	64.2	441	6.3	13.8	18.2	61.7	158
	전체	54.8	1,640	25.2	37.6	19.7	17.5	742	43.3	1,792	22.6	34.6	20.6	22.2	1,015
90~99년생	서울	41.7	56	45.5	45.6	3.0	5.9	32	28.3	99	37.8	47.7	2.9	11.5	71
	서울 외 수도권	64.0	85	12.7	73.4	1.7	12.2	31	48.4	145	14.6	66.7	5.4	13.4	75
	수도권 외 광역시	51.2	60	-	2.9	71.5	25.7	29	33.5	104	1.2	4.0	56.7	38.1	69
	수도권 외 도	73.2	153	2.1	17.7	11.6	68.6	41	71.0	161	1.5	7.9	10.3	80.2	47
	전체	62.3	354	14.6	34.0	20.4	30.9	134	48.6	508	15.0	34.5	19.2	31.4	261
전체	서울	37.4	703	53.3	40.0	3.7	3.0	440	30.7	894	45.6	41.3	4.7	8.4	620
	서울 외 수도권	60.2	808	17.8	76.1	0.6	5.6	322	45.2	903	17.4	68.8	3.2	10.6	495
	수도권 외 광역시	48.9	585	0.5	3.4	75.0	21.1	299	32.2	824	4.6	10.1	58.0	27.3	559
	수도권 외 도	74.8	901	4.1	16.1	11.8	68.0	227	61.9	933	6.6	18.6	18.4	56.5	356
	전체	57.0	2,998	23.5	36.3	20.9	19.3	1,288	42.9	3,554	20.6	35.5	21.4	22.6	2,030

주: 1) 30케이스 미만인 경우 해석에 주의를 요함.
2) 00~05년생은 결혼 케이스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출처: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박종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원자료 분석.

4 나가며

이 분석에서는 대학(교) 진학, 첫 취업, 첫 결혼 전과 후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고, 지역 간 이동자에 한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였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는 주요 생애 사건 전후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로, 거주 지역 변화의 이유가 명확히 해당 생애 사건 때문은 아닐 수 있으며, 반대로 거주 지역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생애 사건이 같은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 사건 전후의 전반적인 지역 분포와 이동 현황은 파악할 수 있다. 대학(교) 진학과 첫 취업, 첫 결혼 전후의 지역 분포에 대한 분석 결과 성별, 출생 코호트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동일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대학(교) 입학 전에 비해 입학 후의 지역 분포는 서울과 수도권 외 광역시 지역 거주는 증가한 반면 서울 외 수도권과 수도권 외 도 지역의 거주는 감소하였다. 첫 취업 전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거주는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 거주는 감소하였다. 첫 결혼 전후로는 서울 외 수도권과 수도권 외 도 지역 거주는 증가한 반면 서울과 수도권 외 광역시 거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애 사건 전후의 지역 분포 변화는 이 연구에서는 그 이유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학의 경우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이 대부분 서울에 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역 거점 대학 등 지역 이동을 감행할 만한 대학이 광역시에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취업의 경우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3]되어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더 커졌기(강동우, 2023; 주무현, 2025) 때문에 수도권 거주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의 경우 주거비로 인해 수도권에서는 서울보다 주거비가 낮은 경기나 인천 지역 거주가 증가하고, 비수도권에서는 광역시보다 주거비가 낮은 도 지역 거주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의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이 혼인에

[표 5] 주요 생애 사건 전후의 지역 분포 변화

생애 사건	서울	서울 외 수도권	수도권 외 광역시	수도권 외 도
대학(교) 입학 전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첫 취업 전후	증가	증가	감소	감소
첫 결혼 전후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출처: "결혼과 출산의 최근 동향과 영향 요인: 2024년 가족과 출산조사 심층분석", 이지혜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03, 〈표 4-16〉.

3) 30대 기업의 90%, 1000대 기업 중 7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김지섭 외, 2026).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이석희, 2025; 천현숙 외, 2016) 결과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생애 사건 전후의 지역 이동에서는 수도권 외 도 지역 거주자가 타 지역 거주자에 비해 대학(교) 입학 전후, 첫 취업 전후 지역 이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외 도 지역 청년의 초기 지역 이탈이 큰데, 이는 해당 지역의 대학이나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결혼의 경우에는 반대로 수도권 외 도 지역 거주자의 첫 결혼 전후 지역 이동이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서울 지역 거주자의 지역 이동이 가장 많아 앞서 언급한 대로 주거비 부담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일자리를 위한 이동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많은 반면 결혼으로 인한 이동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았으며 대학 진학이나 취업 시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수도권 외 도 지역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었다. 성별 지역 이동 양상은 수도권 외 도 지역 청년층의 성비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데,[4] 결혼 전후 여성의 지역 이동은 이러한 청년층 성비 불균형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생애 사건 전후로 지역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같은 수도권이라도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 같은 비수도권이라도 광역시와 도 지역의 지역 이동 패턴이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광역시는 대학 진학에서 어느 정도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첫 취업에서는 다시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임을 알 수 있다. 비수도권 도 지역은 대학부터 취업까지 가장 많은 이동이 있는바 원격수업 활성화나 세종시의 공동 캠퍼스와 같이 여러 대학이 함께 캠퍼스를 활용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에서도 양질의 대학 수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결혼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의 높은 주거비, 비수도권의 경우 광역시의 높은 주거비가 지역 이동의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복주택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및 구입 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지원 정책이 많으나, 주택 공급 규모나 소득기준과 같은 지원 조건에서의 제약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참고문헌

강동우. (2023). 일자리 분포의 지역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리뷰, 2023년 11월호**, 7-22.

국가데이터처. (2025. 12. 3.).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

4) 실제 2025년 주민등록연앙인구 기준 20~30대의 시도별 성비는 서울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100 이상(남성이 여성보다 많음)이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의 지역은 성비가 121 이상으로 남성이 매우 높다(2025년 성별 연령별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로 저자 계산).

득변화 분석 및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과의 연계 활용-데이터로 본 청년의 이동과 소득변화 : 5극3특 균형발전 정책에 반영- [보도자료].

국가데이터처. (2026. 1. 29.). **2025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보도자료].

국가통계포털. (2026. 3. 2.). **시도/연령/전입사유별 1인이동건수(국내인구이동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B24&conn_path=I3

김지섭, 이나윤, 윤성우. (2026. 2. 6.). 서울 vs 지방… 대기업 90%가 수도권, 지역 청년은 기회조차 없다 [벌어진 격차, 멀어진 세대] [3] 수도권·비수도권 '일자리 양극화'.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02/06/3IOESANZG5DTHJBXLOFD7QS7NI/

박종서, 이지혜, 정희선, 이소영, 장인수, 최선영, 이혜정.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석희. (2025). 주택가격 변동이 출산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 분석. **주택금융연구, 9**(2), 69-101.

이지혜, 박종서, 이소영, 장인수, 최선영, 정희선. (2025). **결혼과 출산의 최근 동향과 영향 요인: 2024년 가족과 출산조사 심층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무현. (2025). 이중 전환 시대 지역고용정책의 과제. **지역산업과 고용, 17**, 10-26.

천현숙, 이길제, 김준형, 윤창원. (2016). **주택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통계청. (2025. 9. 17.).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 청년층(19~34세)과 중장년층(40~64세)을 중심으로-** [보도자료].

한요셉 (편). (2021).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에 관한 연구: 대학 진학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Bernard, A., Bell, M., & Charles-Edwards, E. (2014). Life-course transitions and the age profile of internal migra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0*(2), 213-239.

보건복지포럼 [2026. 05.] DOI: 10.23062/2026.05.3

Life Events and Residential Mobility: Evidence from College Entry, Employment, and Marriage

Yi, Jihy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study examines how residential mobility patterns change around key life events—such as entering college, starting employment, and getting married—among individuals aged 19–49. College entry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ate of relocation to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cities. Entry into employment is associated with higher rates of movement to Greater Seoul (Seoul and its surrounding areas), whereas first marriage is associated with a reduced likelihood of residence in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citie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regional mobility among young people is closely linked to structural factors such as higher education, job opportunities, and housing costs, suggesting the need for policy responses that take life-course characteristics into account, including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regional universities, expanding job opportunities outside the capital region, and providing housing support for young people and newly married couples.